

코로나19에 따른 각국 도서관 정책 동향

미국과 영국의 긴급 경기부양을 위한 박물관, 도서관 부문 재정지원

- ① 미국, 박물관도서관연구소(IMLS)에 5천만 달러 예산 배정
 - 지역사회에 디지털네트워크 접속 확대 등 기술 지원 서비스 제공 확대
- ② 영국, 예술위원회(ARTs Council), 1억 6천만 파운드 예산 지원
 - 문화부문에 종사하는 기관 및 개인을 대상으로 예산 지원 계획 수립중

디지털콘텐츠 서비스를 위한 저작권 문제 공동 해결 및 구매계약 관련 지원

- ① 호주도서관협회, 저작권단체들과 한시적 저작권 사용협정에 동의
 -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공공도서관의 이야기시간을 녹화 또는 실시간 재생하는 것 허용
- ② 영국도서관정보전문가협회, 학교도서관 그룹, 유료교육콘텐츠의 무료 허용
 - 무료평가판의 유효기간 연장, 한시적인 무료 이용 허가, 별도의 파트너십 체결 등
- ③ 출판사, 벤더 등의 한시적 전자책과 전자저널 무료 제공
 - 영국 캠브리지대학 출판부, 700종의 전자책 교과서 온라인 무료제공
 - ProQuest, Ebook Central 고객에게 2020년 6월 중순까지 무제한 동시접속모델 무상전환
 - Project MUSE, 5월- 6월 말, 학술출판사의 전자저널과 전자책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무료 학술 콘텐츠 이용 지원
- ④ 영국, JISC, 영국국가도서관 등 도서관·고등교육 관련 단체의 신종 코로나19위기의 교육·연구 활동 유지를 위한 공동 성명 발표
 - 코로나19 관련 연구 콘텐츠 및 데이터 세트의 오픈액세스(OA)화, 교육·연구·학습을 위한 기존 라이선스 계약의 일시적 면제, 대학간 상호대차 계약의 일시적 해제, 2차 저작물 관련 저작권 비용 일시적 면제로 교수학습을 위한 콘텐츠 제공범위 확대 등 요구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코로나19)이 중국 전역은 물론 주변 아시아 국가와 북미 등으로 감염세가 확산되자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1월 30일 코로나19에 대해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Public Health Emergencies of International Concern)’을 선포하였으며, 이후 전 세계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이탈리아, 이란 등에서 감염자 속출, 유럽 각국 및 미국 등에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2020년 3월 11일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인 팬데믹(pandemic, 감염병 세계적 유행)을 선포했다.

도서관은 다중이용시설로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고 접촉으로 인한 위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다수 도서관에서는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사용, 관내 소독 등으로 감염증 예방에 노력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2월 23일(일) 코로나19에 대한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한 시점을 전후하여 도서관 휴관이 증가하여 대부분의 도서관이 휴관에 들어갔으며, 전세계적으로는 WHO에서 팬데믹을 선포한 이래, 유럽을 시작으로 미국에 이르기까지 각국의 국립도

서관을 비롯한 대다수의 도서관이 휴관을 발표하였다.

휴관으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전자책, 오디오북, 영화, 스트리밍 TV 등 디지털콘텐츠 서비스가 휴관중인 도서관의 대체서비스로 운영하고 있으나 디지털콘텐츠의 계약상 조건으로 한번에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가 정해져 있어 이용이 쉽지는 않다.

특히 국내외 교육기관의 전례없는 휴교와 온라인 수업 등으로 인해 도서관의 원격학습 및 연구에 대한 폭넓은 지원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저작권 문제에 대한 공동 해결 또는 구매계약과 관련된 지원은 중요한 사안으로 등장하였다.

또한 각국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급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긴급 경기부양을 위한 예산 계획 중 박물관 도서관 부문에 대한 재정지원

미국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승인된 약 2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예산 중 박물관도서관 서비스 연구소(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 IMLS)에 약 5천만 달러가 배정되었다.¹⁾

현재 코로나 19로 인하여 미국인들의 상당수가 재택근무 등으로 원격 의료, 직업, 실업 자원, 바이러스, 정부 조치, 지역사회 안전 메시지 등에 대한 정보접근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IMLS에 배정된 예산은 도서관과 박물관이 디지털 네트워크 접속의 확대, 인터넷 접속 가능 기기 구입 및 학교운영 중단에 따른 기술서비스 제공 등 **지역사회에 디지털네트워크 접속 확대 등 기술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코로나 19와 관련한 대응에 사용될 것이다.

영국에서는, 문화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과 조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국예술위원회(England Arts Council)**을 통해 1억 6천만 파운드의 긴급 자금을 조성·재정 지원할 것을 발표했다. 코로나 19 위기 동안, **예술, 박물관, 도서관** 부문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재정지원으로,

- 국가포트폴리오조직(National Portfolio Organisations, NPO)에 대해 9천만 파운드,
- NPO 이외의 조직을 위하여 5천만 파운드
- 개인에 대해 2천만 파운드

로 지원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²⁾

디지털콘텐츠 서비스를 위한 저작권 문제 공동 해결 및 구매계약 관련 지원

1) Federal Government Invests \$50M in Museums, Libraries to Address Digital Divide During COVID-19(2020/3/27) [Cited 2020. 3.30.]

<<https://www.imls.gov/news/federal-government-invests-50m-museums-libraries-address-digital-divide-during-covid-19>>

2) Covid-19 support, Emergency measures and funding(2020/03/27)[cited 2020.3.30.]

<<https://www.artscouncil.org.uk/covid19>>

디지털서비스를 위한 한시적 저작권 허용 협정 체결

호주도서관협회는 호주 내 저작권 단체들³⁾과 공공도서관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이야기시간(Storytime)⁴⁾을 Facebook, Youtube, Vimeo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여 온라인상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 사용 협정에 동의하였다고 밝혔다. 이 협정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어린이들이 책과 이야기를 즐길 수 있도록 별도의 허가나 비용 지불없이 도서관이 이야기시간을 녹화 또는 실시간 재생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 협정은 코로나19가 WHO의 감염병 세계적 유행으로 남아있는 동안 유효하며 이후 도서관은 관련된 모든 기록을 파기하고 온라인 서비스를 중단하게 된다.⁵⁾

현재 호주도서관협회 웹사이트에는 호주 내 25개 공공도서관에서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이야기 시간⁶⁾을 링크로 연결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은 링크로 개별 공공도서관의 디지털플랫폼에 접속하면 가상이야기시간에 참여할 수 있다.

유료교육콘텐츠의 일정기간 무료 제공

영국도서관정보전문가협회(The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 CILIP)은 “코로나바이러스 정보서비스(CILIP Coronavirus Information Service)”⁷⁾ 웹페이지를 공개하고 3월 13일부터 서비스하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각종 정보 뿐 아니라, 도서관 휴관에 따른 부문별 대체서비스(Sector-by-sector statements on Coronavirus & libraries)를 안내한다. 특히 CILIP의 학교도서관 그룹은 학교 폐쇄에 따라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부모와 교사와 학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료교육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여기에는 기존 무료평가판의 유효기간을 연장, 한시적인 무료 이용허가, 별도의 파트너십 체결 등으로 무료 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휴교기간 동안 학생들의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출판사 등을 중심으로 한시적 전자책과 전자저널 무료 제공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부(Cambridge University Press, CUP)는 코로나19 감염 확대에 따라 고등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부는 이미 지난 1월 코로나19 관련 연구논문을 무료로 제공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캠브리지대학출판부에서 출판하는 700종의 교과서(textbook)을 대학생들에게 무료로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2020

3) 호주서점인협회(Australian Booksellers Association, ABA), 호주출판사협회(Australian Publishers Association, APA), 호주저작가협회(Australian Society of Authors, ASA)

4) 도서관의 어린이실 등에서 유아,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사서 또는 전문이야기꾼(storyteller), 자원봉사자 등이 그림 책을 보여주며 읽어주거나, 책을 읽어주거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 이야기 시간: 목소리를 주도로 하여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책을 읽어주는 독서문화·예술활동. 주로 도서관, 학교, 유치원, 병원 등에서 '보고 듣는 독서' 프로그램으로 활용되고 있다.

5) Book industry partners come to agreement on copyright [cited 2020.3.18.] <<https://www.alia.org.au/news/21007/book-industry-partners-come-agreement-copyright>>

6) PUBLIC LIBRARY VIRTUAL STORYTIMES. [cited 2020. 3. 26.] <<https://www.alia.org.au/australian-libraries-responding-covid-19#Virtual%20storytimes>>

7) CILIP Coronavirus Information Service. [cited 2020.3.24.] <<https://www.cilip.org.uk/news/493378/CILIP-Coronavirus-Information-Service.htm?>>

년 5월말까지 학술플랫폼 Cambridge Core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⁸⁾

또한 ProQuest는 전주제분야에서 150개 이상 해외 출판사의 전자책을 서비스하는 Ebook Central 고객에게 2020년 6월 중순까지 기존 계약 유형에 상관없이 추가 비용지불없이 모든 타이틀을 무제한 제공하는 **무제한 동시접속모델로 무상전환** 서비스를 시작하였다⁹⁾¹⁰⁾.

전세계 125개 이상의 출판사로부터 700종의 전자저널과 100개 이상의 출판사의 60,000권 이상의 전자책을 제공하고 있는 Project MUSE는 일시적으로 **무료로 학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약 50여개의 출판사가 동참하고 있으며 참여출판사는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있다. 무료제공기간은 출판사별로 다르나 5월 말 또는 6월 말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참여출판사에 대한 내용은 웹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¹¹⁾¹²⁾

3월 20일 영국의 고등교육분야 IT 및 디지털 관련 지원기구인 JISC(Joint Information Systems Committee)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속에서 교육 연구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디지털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모든 업체에 영국 내부의 여러 **도서관·고등교육관계 단체와의 연명에 의한 공동 성명**을 영국출판협회(The Publishers Association)와 학회 및 전문사회 출판인협회(Association of Learned and Professional Society Publishers, ALPSP)에 제출했다.¹³⁾ 공동성명은 영국도서관(British Library, BL), 영국연구도서관컨소시엄 (Research Libraries UK, RLUK), 영국국립대학도서관협회(Society of College, National and University Libraries, SCONUL), 대학협회(Association of Colleges), Southern Universities Purchasing Consortium, SUPC), 영국대학협회(Universities UK, UUK) 등의 연명으로 발표되었다.

이 성명은 출판사 및 디지털콘텐츠 공급업체 등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기관의 교육·연구 활동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행동을 요구한다.

1. 코로나19, 백신, 항바이러스 약물 등에 관한 콘텐츠 및 데이터 세트에 대한 즉시 오픈액세스(OA)화 하고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을 저해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제거
2. 연구와 학습을 위해 대학 등 기관의 라이선스 계약에 의한 디지털 콘텐츠의 동시접수자 수

8) Cambridge University Press increases coronavirus support for academic customers(CUP 2020/3/17) [cited 2020. 3.23.]

<<https://www.cambridge.org/about-us/news/cambridge-university-press-increases-coronavirus-support-academic-customers/>>

9) Coronavirus-Impacted Libraries Get Unlimited Access to Ebook Central Holdings

<<https://www.proquest.com/blog/pqblog/2020/Coronavirus-Impacted-Libraries-Get-Unlimited-Access-to-Ebook-Central.html?>>

10) 단일 사용자 및 3 사용자 모델을 포함한 모든 라이선스는 해당 기간 동안 무제한 액세스로 자동 변환

11) Project Muse 참여 출판사는 대부분 대학출판사와 학술단체 등이며, 디지털인문학과 사회과학 콘텐츠가 주를 이룸

12) Free Resources on MUSE During COVID-19. [cited 2020. 3.27.]

<<https://about.muse.jhu.edu/resources/freeresourcescovid19/>>

13) Statement on access to content in response to COVID -19(Jisc 2020/3/20). [cited 2020. 3.26.]

<<https://www.jisc.ac.uk/news/statement-on-access-to-content-in-response-to-covid-19-20-mar-2020>>

등의 제한에 대한 일시적 면제

3. 교육 과정이 온라인으로 제공됨에 따라 온라인 콘텐츠 사용률이 높아질 것을 감안하여, 전자책의 증거기반 또는 수요중심 수서(Evidence Based Acquisition(EBA) 또는 Demand Driven Acquisition(DDA)) 모델의 트리거를 면제 혹은 중지
4. 대학간에 학생들이 학업을 도울 수 있도록 상호대차와 복사에 대한 기존 계약상 제한의 일시적 해제
5. 저작권관리단체(Copyright Licensing Agency, CLA) 등과 협력하여, 2차 저작물의 디지털화 관련 비용을 일시적으로 면제함으로써, 교수가 학생에게 필요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 확대
6. 미 구독 콘텐츠에 대한 시험 구독 기간(trial access periods)을 90일로 연장
7. 온라인 및 원격 교육 활동 및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원격 액세스에 대한 제한 해제

또한 출판사와 벤더 등에게의 권고사항으로 다음 사항을 제시한다.

1. 유연한 계약기간 설정, 지불 기한의 연장, 정기적인 계약갱신이 중단된 경우의 콘텐츠에 대한 접근유지 허용
2. 세계적으로 이용자 커뮤니티, 공중보건시스템, 주식시장에서 발생하는 혼란이 안정화될 때까지 예정된 콘텐츠 가격 인상의 연기 또는 최소한으로 억제
3. 기존의 이용자격인증시스템이 과부하될 경우 가입자 제한과 콘텐츠에 대한 제한을 일시적으로 해제하거나 구독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하는 다른 인증 시스템의 개발